

목포자연사박물관, '체험·휴식 공존'...관광 거점 도약

단방향 전시 탈피 복합공간 개편
리뉴얼 후 年 관람객 25만 돌파
야외에 '아트테이먼트파크' 구축
서남권 대표 체류형 관광지 거듭



지난해 5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협력해 개최한 어린이날 축제에서 방문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제공〉

전남 서남권의 핵심 문화 전시 인프라인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기존 단방향 전시 중심 운영에서 탈피해 교육과 체험, 휴식이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편하며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15일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실시한 전시 리뉴얼을 기점으로 맞춤형 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대 적용한 결과, 현재 연간 관람객 수가 25만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변화는 관람 방식의 구조적 전환으로,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고 정보를 전달하던 정적인 관람에서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참여하는 실감형 체험 방식으로 운영 시스템을 재편했다.

자연사관의 경우 공룡 골격과 지질, 생물 표본

전시물 기반으로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실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연계 시설의 콘텐츠 고도화도 병행 추진 중이

다. 생활도자박물관은 물레 체험과 도자 제작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해 운영하고, 어린이박물관은 가상현실(VR) 기반의 디지털 실감형 전

시를 도입해 해양 생태계에 대한 관람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같은 체험 중심의 운영 전략은 체류 시간 확

대와 관람객 유입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방학 기간 자연사 교실과 학교 단체 체험 학습은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협력해 개최한 어린이날 축제에는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냈다.

야외 체류형 인프라도 대폭 강화된다. 박물관은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천연기념물인 '신안 압해도 공룡알 동지 화석'을 모티브로 한 '아트테이먼트파크'를 야외에 구축하고 있다.

해당 공간은 전남 서남권에 서식했던 오비랍터 공룡을 주제로 단순 조형물 전시를 넘어 관람객이 잠시나마 머무를 수 있는 포토존과 휴식형 체험 콘텐츠가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임진택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박물관에서 체류하며 오감으로 경험하는 복합 문화 관광 인프라로 공간의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야외 거점 공간과 실내 전시 연계로 강화해 서남권을 대표하는 체류형 가족 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영광 특화 품목 '새싹인삼' 일본 수출길 오른다

이로운세상·日 미토요시조합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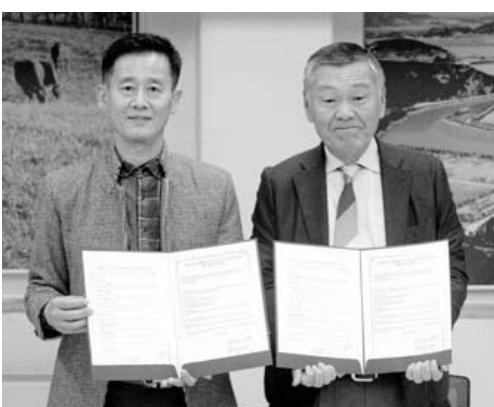
영광군 지역 특화 품목 '새싹인삼'이 일본 현지 조합과의 기술 교류 및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수출길에 오른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회사법인(주)이로운세상과 일본 카가와현 미토요시 차업조합이 새싹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양 기관은 새싹인삼을 비롯한 지역 우수 농산물의 일본 현지 수출 확대 및 판로 개척, 수경 재배 농업 기술 정보 교류, 지역 농업 활성화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앞서 이로운세상은 군의 귀농 정착 및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을 받아 새싹인삼 수경 재배 기반을 확립했다.

일본 미토요시 차업조합 측은 기존 주력 제품



인 녹차의 판매 감소에 대응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인삼 수경 재배 기술 도입을 모색했다.

정재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현지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영광산 새싹인삼이 일본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외국인 유학생 강진 전통·미식 문화 '흠뻑'

송원대 국제교육원 교류 행사 성료

학생 214명 농작물 수확·다도 체험

강진군은 지역 내 독창적인 체류형 관광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문화체험 교류 사업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5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최근 송원대학교 국제교육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교류사업'에 총 214명의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급증하는 유학생의 지역 연계 체험 수요에 맞춰 실무 중심의 밀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진을 찾은 유학생과 대학 관계자들은 지역 안팎을 방문해 지역 특산물인 딸기를 직접 수확했으며, 관내 식당에서 남도 한정식을 시식하고, 백운차실로 이동해 한국 고유의 전통 다도 문화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국가 지정 명승인 백운동원림과 대규모 차밭이 조성된 강진다원 일대를 차례로 탐방



하며 지역이 보유한 핵심 자연 경관과 역사적 자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유학생은 "책에서만 보던 한국 문화를 강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정말 뜻깊었다"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따뜻한 환대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맞춤형 체류 관광 콘텐

츠를 지속 발굴해 실질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및 글로벌 관광 거점 브랜드화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단순한 현장 유람을 벗어나 강진만의 특색을 담은 체험 중심의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국제 교류 채널을 확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나주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20~22일 4개 과정 선착순 180명

나주시는 15일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총 4개 신체활동 과정에 참여할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자발적인 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 과정·인원은 요가 40명, 기공체조 40명, 라인댄스 50명, 줌바댄스 50명 등 총 180명 규모다.

정원 초과 시에는 대기자를 별도로 접수해 운

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접수는 나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수강생은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강용근 보건소장은 "시민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완도군 망남·동고·금일 어촌 기반 확충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300억 투입

완도군은 15일 "관내 3개 권역에 총 3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어항 시설 정비와 맞춤형 생활 기반 확충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순차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완도

읍 망남 생활권, 신지면 동고 생활권, 금일읍 관문권 등 3개소에 권역별로 100억원씩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각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4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망남 생활권은 어항 시설 개선을 골자로 오는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공사에 착수한다.

동고 생활권은 폐교를 활용한 돌봄 센터 및

공동 생활 활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기본 계획 승인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최근 선정된 금일읍 관문권역은 경로당 신축과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정비 등을 담은 예비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5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권역별 맞춤형 생활 거점 조성 및 핵심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군, 생태계 교란 '왕우렁이' 수거

3단계 포획...생태계·농작물 보호

함평군은 친환경 농업에 투입되는 왕우렁이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차단하고 벼 등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포획·폐기 조치에 나선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농림수산식품부 관리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군은 왕우렁이생산자협회 및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과 연계해 읍·면별 수거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영농 시기별 3단계 집중 수거 체계를 가동하며, 4월에는 농수로 잔류 개체를 수거해 논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7월과 벼 수확기에는 농경지 안팎을 집중 점검해 유인 수거 및 월동 방



지 작업을 실시한다.

수거된 개체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전량 폐기 조치되며, 식용으로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수거 실적과 투입 인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유출 개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무안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세요"

5개팀 선정 600만원 지원

27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무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주도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5개 팀을 모집한다. <사진>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또는 법인·단체다.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5개 팀을 선정하며, 선정된 공동체에는 팀당 600만원의 과업 수행비가 지원된다.

참여 팀은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간 취·창업 역량 강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청 희망 공동체는 신청 서류를 갖춰 무안군 인구정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